

#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글, 사진 노성천 선교사

/ KWMA 협동총무

다음은 이번 New Target 2030 해운대 포럼에 소개된 ‘글로벌 사우스’ 관련 내용 전문이다. New Target 2030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모임들이 진행중에 있다. 본 글은 New Target 2030 해운대 포럼 선언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행동강령, 그리고 진행되는 여러 사역에 대한 제안이다.

## 1. World Christianity 및 Polycentric Mission의 시대

오늘날 전 세계기독교 인구의 3분의 2가 비서구권에 살고 있다. 북반구 교회의 급격한 약화와 남반구 교회들의 부상으로 인해 “World Christianity”(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를 일컬어 다중심적 선교 (Polycentric Missions)라고 묘사하고 있다. 남반구 지역은 더 이상 Mission Field가 아닌 Mission Force로 변모하였다. 21세기 기독교와 글로벌 선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한 번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선교 이 변화에 능동적이고 현명한 응전을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상황. 그리고 새로운 선교 전략의 필요성

2023년 한국의 선교리더십이 구심점이 되어 남반구 선교네트워크가 시작되었다. 평창에서 있었던 제8차 NCOWE 대회에서 한국 선교지도자들과 비서구권 선교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던 중 비서구권의 선교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COALA (Christ Over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가 결성되어 후속모임으로 올해 5월1-3일에 태국 방콕에서 2차 COALA2 대회를 가졌으며, COALA 2.5 모임을 2024년 9월 28일 10월 3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가졌다. COALA운동은 남반구 선교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21세기 새로운 선교운동을 다음을 같이 천명하고 있다: • 성령이 주도하시는 선교 (HS-initiated), • 현지/로컬리더십을 존중하는 선교, 컨텍스트와 문화적 감수성의 중시, 4S (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화)에 원칙한 교회설립, • 선교사는 산파이지 산모가 아님, 현지인의 주체적 결정, 재정사용에 조심스러운 지혜로운 사용, 연합과 파트너십 중시 등이다.

## 3. 글로벌 사우스 공동문서의 내용과 의미: Communique on COALA 2

2024년 5월 3일에 방콕에서 제2차 COALA 대회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도자 4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From Christendom to Poly-centric Missions”이라는 주제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선교의 새 방향을 제안하는 “Recommendations for Mission Practice for the Majority World” (COALA2, Bangkok, 1-3 May 2024) 문서를 제안하였다.

이번 코알라2 대회 말미에 MW 선교에 주는 제안과 권면 (Recommendations for Mission Practice for the Majority World)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COALA2 공동성명서는 글로벌 사우스 주요 선교지도자들이 동의한 문서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COALA2 공동문서는 글로벌 사우스 선교운동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과 자원, 재정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선교를 대체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둘째, 중요 내용은 현지인 중심의 선교이다. 현재 세계기독교의 시대에 각국에 현지인들의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 중심이 아닌,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더는 건강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선교사는 현지교회의 체제 안에서, 혹은 현지교회와의 밀접한 협력 속에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선교에서 재정 (돈)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정이 선교의 가장 핵심적 영역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정의 능력은 선교와 교회 안에 상하 관계와 주도권을 만들게 된다. 혹자는 부유한 서구의 재정자원과 MW 인적 자원의 결합으로 선교를 하자고 하지만, 이는 글로벌 선교를 또 한번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돈 없이 하는 선교 가운데, 우정과 사랑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는 새로운 글로벌 선교의 방향이 될 것이다. 코알라2는 돈에 의한 선교를 지양한다.

넷째, 선교사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교회의 요청 하에 파송되어야 한다. 이는 현지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효과적인 선교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선교사는 자신을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아닌, 아기 낳는 것을 돕는 산파라는 것이다. 선교사는 현지교회를 낳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지교회의 리더쉽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현지교회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으로 선교사는 산파로 주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다.



제2차 COALA 대회 (방콕, 2024.5.3)

COALA stands for "Christ Over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Communique on COALA 2 서명식

#### 4. 유럽교회(글로벌 노스)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류와 배움

KWMA 대표단은 유럽교회의 초청으로 European Leadership Forum (이하 ELF) 대회를 참석하면서 선교협력을 진행하였다. 2023년과 2024년 ELF를 참석하면서 유럽교회의 변화의 노력에서 가장 크게 인상 받은 것은 바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교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겸손한 자세였다. 2023년 ELF 대회 오전 주강사는 잠비아의 Conrad Mbewe 목사였다. Conrad Mbewe 목사는 대회 기간 나흘 동안 말라기서 강해를 통해 교회갱신의 성서적 원리와 아프리카 교회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유럽교회의 상황에 대해 전하였다. 아프리카 목회자의 말라기서 성서해석을 통해 살아 있는 영성과 성서해석의 깊이를 유럽교회와 나누었다. 2024년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4년 ELF 주강사는 Revive Europe의 대표 Rene Brucel 목사였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983년에 출생한 Rene Brucel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내인 Sarah Breuel과 함께 이태리 로마에서 교회개혁 사역과 유럽 청년운동사역을 섬기고 있다. 비록 Rene Brucel 목사가 백인이지만, 유럽으로 파송받은 남미교회의 선교사를 주강사로 남미교회의 영성과 교회발전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지난 세기 세계선교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유럽교회가 겸손히 아프리카 영적 지도자의 강해와 가르침을 들으며, 아프리카교회를 배우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듯 유럽교회는 겸손한 자세로 글로벌 사우스교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과거 기독교회를 이끌었던 유럽의 명성과 전통을 내려놓고 이제는 피선교지였던 이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기독교 시대에 걸맞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유럽교회의 겸손한 모습은 한국교회가 남반구교회와의 교류에서 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라 생각된다.



2023 주강사 잠비아 Conrad Mbeve 목사



2024 주강사 브라질 Rene Brucel 목사



2024 ELF 대회 (Bisla, Poland)

## 5. 선포 내용 (action plan)

### 1) COALA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남반구 선교의 발전

코알라 3차 대회가 2025년 4월 남미 COMIBAM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글로벌 사우스 선교지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Global Mission'(글로벌 선교의 이전 서구선교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주제로 모이게 된다. 서방교회와의 소

통을 위해서 3명의 글로벌 노스 지도자들을 초청하려 한다. 코알라 네트워크운동은 글로벌 선교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선교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선교는 코알라 선교운동의 시작을 섬긴 역할과 리더십을 계속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남반구 선교전략을 발전과 공유

남반구교회들은 북반구교회들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다. 그들은 제한된 경제력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전파를 통한 선교운동을 자체적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알라 선교운동은 남반구교회들이 실행가능한 선교방식과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이란 등 억압받는 지역들의 선교는 또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재정을 의지하지 않는 남반구의 선교방식은 초대교회의 선교를 닮아있다. 초대교회의 선교전략을 바탕으로 남반구의 선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남반구 선교전략을 한국선교가 함께 공유하고 실행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갱신과 회복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3)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의 시행

세계기독교 시대의 글로벌 선교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구의 일국체제와 제국주의 시대의 가부장적 선교, 외부의 재정에 의지하는 선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교사는 현지교회와 동반자 선교, 혹은 현지교회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선교이며, 성숙한 선교의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코알라 네트워크는 현지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네트워크 파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선교는 이 일에 앞장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선교를 실천하여 글로벌 선교의 새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남반구교회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신학과 한국적 선교신학을 형성

남반구 선교운동이 지속적 건강히 발전하게 위해서는 전략의 발전을 넘어서서 남반구 선교신학이 형성되어야 한다. 서구의 선교신학을 대체하면서 남반구교회들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선교학적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선교와 선교신학계는 다수교회 선교계와 신학적 교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구선교시대에 서구선교신학이 보편적 담론이 되었던 것과 같이, 세계기독교 시대에 남반구 선교신학은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남반구 선교신학과의 보조를 맞추어 한국적 선교신학의 개발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 5) 다수세계교회의 청년선교 지도자 교류의 필요

남반구 선교시대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해 남반구 청년선교지도자 모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모임 중에 청년 전도, 소그룹, 제자훈련, 연극, 영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디지털 사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반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청년들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다음세대 선교지도력과 남반구 선교의 방향과 선교지도력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한국 청년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 21세기 세계기독교 시대에서 새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